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19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개최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힘써온 방송기술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2019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가 지난 12월 5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최와 파나소닉코리아의 후원으로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수상에는 추천을 받은 연합회원을 대상으로 각사 협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9명과 3팀이 방송기술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덕상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초대 연합회장,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박종원 KBS 제작기술센터장, 김종규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이동협 SBS A&T 사장, 방규석 EBS 기술본부장, 이경범 CBS 경영본부장, 송현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안수영 한국PD연합회장, 안형준 방송기자

연합회장, 전병우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장 등을 비롯해 각사 기술인협회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시상식 진행은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가 맡았다.

행사의 시작으로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석한 회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방송기술인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작년 26대 연합회가 출범하면서 크게 2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두었는데, 그 중 첫 번째 사업이 한반도



기념사 중인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축사 중인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

평화와 남북 교류였다. 남북이 직접 교류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연변대학교, 연변방송국과 접촉했고, 지난 6월 말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라며 간접적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두 번째 역점 사업을 설명했는데, 바로 지상파 UHD 서비스의 활성화였다. 이 회장은 “기대만큼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했고, “유럽의 경우 HbbTV 표준으로 만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영국의 Freeview Play 플랫폼이 TV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그러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KOBA에서도 HbbTV의 Vincent 의장님을 KOBA에 모셔서 미디어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전했고, 얼마 전 HbbTV 심포지엄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방송사가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에는 변화가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캠핑까지 관련 방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다.”라며 놀랐던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방송사에 질의서를 보냈던 사건을 언급하며 “‘UHD 송출을 IP 플랫폼의 유료방송을 통해서 하고, 지상파 방송국은 UHD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겠냐’는 질의는 정

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왜 이러한 주장과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는가를 돌이켜 보았을 때, 방송사가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방송사 종사자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방송기술인이 그 누구보다 노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하며, 힘든 현실이지만 방송기술인의 건승을 기원하며 기념사를 마쳤다.

이어서 안덕상 초대 연합회장은 축사에서 이상규 회장님의 남북 관계 사업과 미래 방송을 향한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4차 산업이 대두되는 지금 방송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고민해봤다.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것은 자유와 개성으로 생각하며, 이는 정체성에서 발현되고, 이 정체성은 개인의 언어 습관, 전통, 역사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으며,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에서 나온다고 본다.”면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방송의 기본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정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말과 언어의 중요성 역시 매우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외래어가 상용화되어 있다. 정부의 문서를 보거나 방송을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새로운 기술 용어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며 언어 현실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러한 방송, 기술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며, 앞으로 새로운 용어는 계속해서 쏟아질 상황인데, 시간이 더해갈수록 남북의 이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말과 글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새로 생기는 용어부터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며 소신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전파는 차별이 없고, 공평한 민주적인 자원이다. 이러한 전파를 통해 차별을 조장하고, 계층 간의 단절을 조장하면 안 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된 분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2019 방송기술대상 수상자, 공통 부상 : 파나소닉 협찬 제품

수상	소속 및 성명	부상
대상	KBS 서영우	NAB 2020 참관 특전 / 상장
최우수상	MBC 이용성, SBS 양재성·조영훈·강동민, 김학현	CCBN 2020 참관 특전 / 상장
우수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연구소, CBS 한철, EBS 이동열, OBS 윤병철, MBC 안지훈	상장 / 상금
장려상	tbs 홍순우, YTN 김영호	상장 / 상금
특별상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상장 / 상금



소감을 전하는 서영우 대상 수상자

본격적인 시상에서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특별상의 순으로 시상이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에는 CCBN 2020 참관 특전과 상장, 파나소닉 협찬 제품이 부상으로 주어졌고, 우수상과 장려상, 특별상에는 상장과 상금, 파나소닉 협찬 제품이 전해졌다. 특별상 수상에 이어 노이뮤직의 공연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장내 정리가 진행되었다.

영광의 대상은 서영우 KBS 팀장이 받았다. 대상 수상으로 NAB 2020 참관 특전과 상장, 파나소닉 협찬 제품이 전달되었고, 수상 소감에서 서 팀장은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상은 사람들에게

게 그 의미를 다시금 되살려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이걸 들고서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더욱 설득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상파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이끌어 내며, 지상파 중심의 참신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미디어로, 국민의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기술 증진과 공공 서비스를 위한 포부를 언급하고,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호명하며 마음을 전했다.

송년회의 의미를 더하는 케이크 커팅에는 주요 내빈의 참여로 진행되었고, 건배 제의에는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맡았는데, 건배사에서 “최근 방송국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있다. 글로벌 OTT의 성장과 광고 하락 등도 문제지만 심각한 방송 규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며 방송 규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건배를 권유했다.



내외 귀빈들이 참여한 케이크 커팅식



건배 제의를 청하는 이창형 KBS 기술본부장

2019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및 송년회 사진



1. 송년회에 참석한 연합회원들
2. 장려상을 수상하는 김영호 수상자
3. 장려상 수상자 단체사진
4. 최우수상 수상자 단체사진
5. 사회의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
6. 우수상 수상자 단체사진
7. 공연 중인 노이뮤직
8. 최우수상 부상을 받고 있는 이웅성 수상자
9. 방명록을 적고 있는 김중규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10. 특별상을 받은 변철호 수상자
11. 대상을 받는 서영우 수상자



2019 방송기술대상 수상소감

대상 _ KBS 서영우

ATSC 3.0 기반 UHD 재난경보방송 서비스 기획 및 구축
멀티미디어 재난 정보 서비스 표준화에 기여



부족한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UHD 재난경보방송과 모바일 융합 서비스 담당 팀장으로 올해 재난 시범서비스 출범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통위, 과기부, 가전사... 계속 부딪혔었구요. 우여곡절 끝에 지상파 공공미디어의 씨앗을 이제 겨우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5G 시대입니다. 지상파 방송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기는 항상 주변에 있어 그 귀중함을 모르듯 사람들은 지상파 방송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틀어놓고 보는 뉴스, 버스를 타고 가며 듣는 음악, 운전하면 으레 듣게 되는 친숙한 57분 교통정보, 싱글벙글 진행자들, 당당한 인터뷰, 호탕한 웃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긴박하게 전해지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 5G 세상이 오든 6G의 끝내주는 통신망이 오든 이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우리에게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상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금 되살려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들고서 방통위, 과기부, 행안부 더욱 설득하겠습니다.

지상파에 좀 더 관심을 두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상파 중심의 참신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미디어로, 국민의 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지원을 아끼주지 않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상파 재난방송과 융합서비스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창형 기술본부장님, 박종원 제작기술센터장님, 이종수 국장님,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걸 전략기획실장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전병우 회장님, 미디어 기술연구의 기동정병희 연구소장님, 이만규 부장님, 양기선 팀장, 이문식 팀장,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연구소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든든한 만형 김준성 KBS 협회장님, 과하게 든든한 박민호 사무처장님, 젠틀맨 박재석 수석부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 방송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술인 여러분 모두와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_ MBC 이용성

지상파 최초로 UHD 아카이브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 수행
콘텐츠 유통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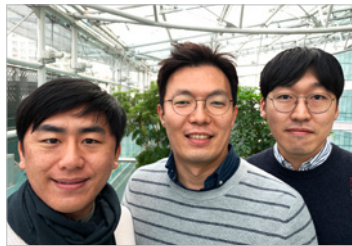
생각지도 못했던 방송기술대상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MBC 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은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외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자, 국내 S/W 협력사와 공동 개발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UHD 아카이브 솔루션의 경우 LTF5라는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여 외산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은 국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디어 소비 행태가 바뀌어 감에 따라 신규 서비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카이브는 저장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 사업 시 콘텐츠 공급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의 아카이브 시스템은 저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기반을 닦아주신 선배님들과 지금도 아카이브 및 유통시스템의 고도화와 운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통인프라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수상 _ SBS 양재성·조영훈·강동민

24시간 라이브 채널 제작/송출 시스템 개발

지상파 최초 24시간 모바일 뉴스채널 개국에 기여



먼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래 급격하게 방송시청 패턴이 모바일로 넘어가는 환경에 맞춰서 사내에서는 기존 지상파 신호 중 일부를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상 및 신규로 제작하는 온라인 전용 라이브 소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내 여러 팀에서 협업하여 온라인 전용 영상 및 라이브 소스를 쉽게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트위치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24시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가 개발 및 구축 한 시스템을 사내에서 보도/예능/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튜브 같은 강력한 모바일 플랫폼의 등장이 한편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의 위기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기회를 위한 온라인 라이브 채널 제작 및 송출을 위한 기술은 앞으로 우리 기술인들이 협업하여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송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_ SBS 김학현

5G 기술 기반 UHD 방송기획 및 융합서비스 발굴

지상파 최초로 5G망을 통한 YouTube UHD 생방송 제작 추진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 10여 년 전 3G 통신망과 Wibro를 활용한 MNG 장비를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SD 화질의 영상을 전송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나, 4G-LTE 기술이 등장한 이후 MNG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대부분의 방송사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5G 기술의 상용화는 방송기술 환경에도 큰 변화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요 이동통신사와 접촉하여 5세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통사 및 글로벌 MNG 제조사들과의 기술 및 마케팅 협력을 통해 지난 3월 13일 '세

계 최초 5G 기술기반 UHD 중계방송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3월 18일 광화문 제100회 전국체전 ICT 체험관에서 '5G-UHD 특집 모닝와이드 3부' 생방송을 흠결 없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6일 'SBS 슈퍼콘서트 in 인천, KPOP×5G' 제작 시 지상파 최초로 5G망을 통해 SBS YouTube 채널에 UHD로 생방송 하였으며, 공연장 주변에 설치한 5G 체험존에 Run-Through 영상을 UHD-VR로 제작 및 5G로 생중계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내 5G Virtual-TF를 조직하여 보다 고도화된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PoC 및 기술협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노력의 목적은 침체하여 있는 UHD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5G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전쟁 상황에서, 방송기술인들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면을 빌려, 항상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시는 SBS 선후배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수상 _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연구소

스마트폰 취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여 방송기술인의 위상 제고

수상 소감 : 박준영 기술연구소 소장



아리랑국제방송 연구소 개소 후 일 년 남짓 숨 가쁘게 달려와 2019년 방송기술인 대상/우수상을 받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모든 연구소 구성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대내외 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프로젝트 자체를 즐기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구소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경영진, 송상업 기술센터장, 홍재현 기술인협회장, 기술인협회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싸고, 무거운 최고의 장비를 고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무겁고 고가의 '랜드 워리어(LW)'라는 기존의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을 버리고 경제적이고 경량화된 한국산 갤럭시 S10을 그들의 용도에 맞게 군사용으로 개조하여 이전 시스템과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 고성능화되면서 단순한 카메라, 전화 기능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내재한 앱을 통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며, 5G 서비스를 통한 고용량 데이터 전송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적용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은 카메라 렌즈 배율,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용 시간이 비교적 적고 스토리가 중시되는 뉴스취재에는 적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촬영, 편집, 기사 작성, 더빙, 전송, 라이브 송출까지 하나의 경량화된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ENG 카메라 취재가 부정적인 일본 센다이 방송능 우려 지역에서도 현지인의 거부감 없이 스마트폰으로 단 한 번의 제재 없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리랑기술연구소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취재뿐만 아니라 드론 및 여러 대의 스마트폰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뉴스 중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백팩 뉴스 취재시스템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 등 뉴스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20년에도 대내외 연구개발 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방송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_ CBS 한 철

CBS 방송 모바일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의 방송서비스 확장에 기여



뜻하지 않게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 콘텐츠의 소비는 기존 TV, Radio 수신기에서 모바일 기기로 이동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이제 단방향성의 방송을 탈피해 고객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CBS도 방송을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개발해왔으며 콘텐츠의 선호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청취자의 편의성 개선이나 보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적 데이터들을 집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CBS는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을 발전시키며 더 많은 도전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 저에게 큰 상을 주신 것은 많은 방송기술인의 격려라 생각하고 다시 초심으로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준비 하려 합니다. 현재 한국 방송의 힘든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 방송기술인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저희 CBS 방송기술인들과 이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수상 _ EBS 이동렬

보이는 라디오 생중계 시스템 설계 개선, Open-Source를 활용한 사내방송 시스템 개선

N-Screen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 출원/등록



업무를 하면서 '내가 귀찮거나 불편하다 느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바꿔놓고, 남의 시간에 더 많이 놀고먹겠다(?)는 오로지 개인적인 일념하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만들다 보니 일이 커져 버렸고, 결국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우면서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 훌륭한 선배님들이 분명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주신 이 상이, 업무에 있어 귀찮거나 불편하다 느꼈던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많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기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늘 믿고 응원해 주신, 저희 EBS 방규석 융합기술본부장님, 홍대용 부장님, 홍정배 부장님, 박승건 부장님, 김주호 부장님, 하태익 부장님, 김호식 부장님, 이홍식 부장님, 김경수 부장님, 그리고 저희 EBS IT운영부 선/후배님들, 이덕희 EBS 기술인협회장님을 비롯한 저희 EBS 기술인협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가족과 따뜻한 집에서 밥 잘 먹고 다닐 수 있게 매달 꼬박꼬박 입금해 주시는 김명중 EBS 사장님과 사회생활 15년 만에 덕업일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자이언트 팽TV의 '팽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테마기행 시청 중 화면 하단에 지나가던 EBS 채용공고 자막을 저에게 보여줌으로써, 방송기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여행 전문가 제 '와이프'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받은 상금은 뜻있고 즐거운 일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_ OBS 윤병철

하이브리드 방식의 Full HD 종합편집 시스템 구축 총괄 다양한 포맷의 오디오 파일 호환 시스템 개발·운영



안녕하세요. OBS 윤병철입니다. 2007년 OBS 개국당시 종합편집실을 담당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가 Full HD 서버 방식의 편집실, 오디오 믹싱룸 두 개의 분야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Full Digital Server 시스템에서 NLE 기반의 편집시스템과 기존 리니어 종합편집 시스템을 넌리니어 기반의 하이브리드 편집 시스템으로 연구 개발하여 운영했고, Digital Audio Workstation에서 각각의 장비마다 단일 파일로만 사용되던 것을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여러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제작사와 합작으로 연구개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OBS가 개국한 지도 12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행복하게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OBS 기술인도 UHDTV, 5G, 클라우드 등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희망을 후배님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OBS 방송기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인 드립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수상 _ MBC 안지훈

UHD 음향제작 시스템 전환 및 선택형 오디오가 가능한 UHD 드라마 제작에 기여 도쿄 올림픽 실감음향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우선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MPEG-H 3D Audio 기술이 국내 지상파 UHDTV 표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방송 적용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부조정실 1개소와 사운드믹스실 1개소에 Immersive Sound와 Object Audio의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UHD 사운드바의 가격하락과 보급이 확산한다면 3D Audio의 방송 적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새로운 음향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 많은 업무로 인해 고된 한해였지만 이 상을 동력 삼아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_ tbs 홍순우

통합 송신소 이전 및 송신소 안정화에 노력 방송 음질 개선 및 송출 지역 확대에 기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영어FM이 남산송신소에서 관악산송신소로 이전하면서 기존 교통FM과 통합송신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송신소 이전 사업을 하면서 너무 안이하게 방송을 하지 않거나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측정기를 통한 레벨 특성을 보니 정기적으로 레벨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25년 정도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공부하는 방송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려상 _ YTN 김영호

부조정실 오디오 계통을 이중화, 예비시스템 개선

영상 계통에도 시스템 적용 및 안정적인 방송 진행에 기여



2019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 수상이 가장 뜻깊고 기쁜 일이며, 먼 훗날에 다시 되돌아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선 24시간 방송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YTN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 방송기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4시간 생방송을 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예비 시스템은 필수요소입니다. 완벽한 예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시스템 구축에 함께해주신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 속에서 방송계 주변 환경이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기술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방송기술인 동료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 새해에도 직장가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상 _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수요자 중심의 인증 기준안 마련 및 품질 인증 실시

국산 방송장비의 신뢰도 향상 및 현장 적합성 개선에 기여

수상 소감 : 변철호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팀장



방송기술대상 특별상을 주신 한국방송기술연맹회장님 이하 방송사 연합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BS 방송장비인증센터는 2015년 국산 방송장비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송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하여 국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철저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와 국내 방송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미약하나마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장비인증센터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인증 기준안 마련과 이를 토대로 신규개발 국산 방송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공인 KOLAS 자격 취득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증센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방송기술대상 특별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